

77년 '대서양동맹' 흔들리나...미국, 나토 후폭풍 예고

관세로 생긴 균열, 중동 전쟁으로 더 벌어져 트럼프 '거래적 동맹관'에 한국 여파도 촉각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77년간 지속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제를 뿌리째 뒤 흔들 때이다.

세계 최대의 집단방위 체제인 나토의 유럽 동맹국들이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할 때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연일 '후폭풍'을 예고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시작한 대(對) 이란 전쟁 과정에서 나토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더니, 최근에는 '무용론'을 넘어 탈퇴 가능성이 시사되고 나섰다.

결정적 계기는 이란이 사실상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파병 요구였다. 해협 봉쇄로 곤경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를 위시한 동맹국들에 지난 14일 협 개방을 위한 균형 파견을 요구했는데, 이에 응한 국가는 아직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에 격노하며 "기억하겠다"고 버르네가 하면, 영국·프랑스·독일 등 나토의 주요 유럽 회원국들을 "종이호랑이"이자 "겉쟁이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의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고나왔다.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송에 의존도가 큰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 봉쇄를 뚫고 자국으로 에너지를 실어 나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그 해협의 책임을 이윤 국가가 지도록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다"고 말하더니 31일

에는 대놓고 "가서 당신들의 석유를 직접 확보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은 스스로 싸우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듯이, 미국도 더 이상 당신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냉전 시기, 구(舊) 소련의 침공과 공산주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 1949년 북미·유럽 국가들이 만든 기구다. 한 회원국이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이 대응하는 집단방위 조항(헌장 제5조)이 핵심이다.

'대서양 동맹'으로도 불리는 이 체제는 미국의 군사·자급력에 크게 의존해 왔는데, "당신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체제의 존속 필요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면서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공세를 막아내는 우크라이나 지원도 유럽을 통한 '무기 판매' 방식으로 바꿨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과 별개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고율의 관세 부과에 이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관세 위협을 받기도 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이 이란 전쟁에 소극적인 것은 나토의 핵심인 제5조가 이번 전쟁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명분론과 함께, 동맹국들에 가혹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유럽 내 반감을 자극한 결과일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래적 동맹관'을 고려할 때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한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정령지인 팔레스타인 서안에 떨어져 박힌 이란 탄도미사일 잔해. 연합뉴스



가자들 질문에 답하는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아주 곧 떠날 것...아마 2~3주 내"

이란 전쟁 종료 시점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대이란 전쟁을 종료하는 시점에 대해 "아주 곧"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도

내에서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묻자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란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그러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철수 시점을 2~3주로 예상하면서 이란 정권을 교체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UAE·카타르 정상, 이란 공격 '테러'로 지칭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정사는 31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UAE 국영 WAM통신은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아부다비 군주 겸 대통령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에미르(군주)와 회담에서

결국 지역을 겨냥한 이란의 '계속되는 테러 공격'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WAM 통신은 민간인,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 이란의 행위를 테러로 지칭했다.

셰이크 타밈이 방문한 이란에도 이란은 UAE에 탄도미사일 8발, 순항미사일 4발, 드론 36대를 발사했다.

연합뉴스

각종 필터&수처리 설비에 관한 모든 문제
(주)호원테크가 책임지겠습니다.

(주)호원테크

환경산업 개발을 일괄 추진하는 (주)호원테크는
설비기획,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수처리, 설비 및 모든 필터 전문회사입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178

■ ☎ 062)940-8221 · FAX 0629-945-8415 / HP 010-3646-8311